

축산업계

소식

광주, 안성계란집하장 준공

—서울·경기양계조합, GP처리시설도 설치—



서울·경기양계조합(조합장 강희구)은 지난 11월 2일 제1계란집하장(광주) 준공식에 이어 21일 제2집하장(안성)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광주에 설치된 제1집하장은 총 3억2천8백여만원의 자금으로 시간당 14,4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선별기 2개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을 비롯하여 이천, 여주지역 조합원의 계란을 취급하게 되며 하루 20만개를 개량품으로 유통시키고 40만개를 배계량하여 1일 60만개를 취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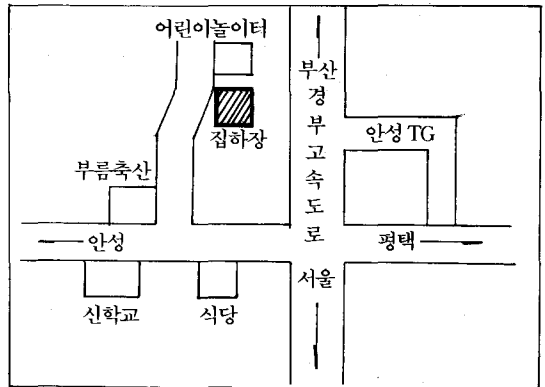
안성에 준공된 제2계란집하장은 총 2억6천여만원의 자금으로 선별기 2대 라인을 설치하여 안성, 평택, 화성군 지역의 조합원 계란을 1일 개량품 20만개, 비계량품 40만개로 총 60만개를 취급할 예정이다.

계란유통구조의 확립, 산란계 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가격조절 역할, 비생산적인 유통마진과 유통부조리 근절, 자체적인 수급조절로 가격의 평준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로서 생산과 판매를 계열화 체계로 확립하고, 생산의 협동화로 생산과 출하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란의 위생적 취급이 가능하여지고, 유통체계 확립으로 가격의 안정과 시장질서를 정착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한편 전북양계협동조합은 전북 완주군에 부지를 매입하고 90년 2월까지 집하장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성집하장

- 주소 : 안성군 공도면 승두리 727
- 전화 : 0333)54-0284
- 약도



한국가금학회 학술이사회 개최 예정

—12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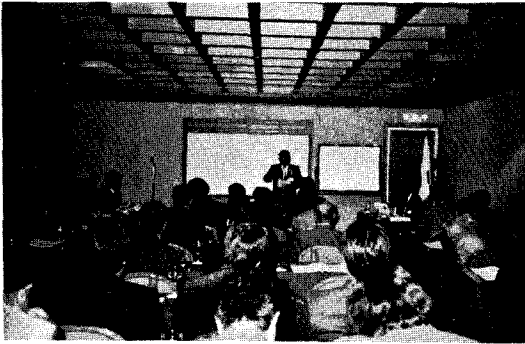
한국가금학회(회장 오세정)는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학술이사회를 개최할 예정

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회지 발간, 90년 춘계 선진지 견학, 90년 전반기 심포지엄 개최, 세계가금학회 아시아 태평양지구 총회 참석 등에 관한 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수입개방시대 양계인자세 세미나 개최

—한일사료, 일본 JRC 기술제휴 기념—



한일사료공업(주)(대표이사 최병덕)는 (주)한일농원(대표 최병덕)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1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일본 JRC 와의 기술제휴를 기념하는 양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하는 양계인의 자세」를 주제로, 전국의 채란농가 경영자 60여명이 모여 진지한 모임을 가졌는데 오봉국 교수(서울대 농대), 오세정 교수(건국대 축산대), 양기원 사장(효리 애계원) 등 국내 강사와 마에다 요시오 차장(일본 애계원), 나가노 히로미 상무(일본 JRC) 등 외국인 강사가 초빙되었다.

오봉국 교수는 「개방화시대 한국양계산업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해 상업적 전업농 중심의 고능력생산체제 전환을 역설했으며, 오세정 교수는 「90년대 양계산업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양기원 사장은 「국제화시대 전업 양계농가의 길」에 대해 각각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화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애계원의 요시오 차장은 한상섭 박사

(KAIST)의 통역을 통해 산란율 향상을 위한 질병 관리대책에서 밀집사육이 불가피한 한국실정상 철저한 백신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가노상무(일본 JRC)는 일본채란양계의 현재 상황과 장래에 대해 한국의 현재 상황이 15~20년전 일본 채란양계업계와 비슷하다고 밝히고 일본의 채란업계가 개방압력을 극복한 사례연구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JRC (Japan Research Control)는 한일사료와 기술제휴를 통해 동사가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잘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채란업계가 수입개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한일사료와 일본 JRC 와의 이번 기술제휴는 한국 채란업계의 밝은 미래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시험장 연구사업결과 발표회

—89년 연구결과 종합발표—

축산시험장은 89년도 한해 동안 추진하여온 축산 시험연구결과 종합발표회를 지난 11월 29일, 30일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가졌다.

첫날은 초기조성, 사료작물 및 축산물 가공이용분야 발표에 이어 둘째날에 가금분야를 비롯하여 한우, 낙농, 양돈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가금분야 발표는 “육계사료의 적정아미노산 및 단백질 수준 구명”, “산란계 시설기구 개선에 관한 연구”, “부업형 양계단지 조성”에 관한 결과발표가 있었다.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학술발표회 개최

—11월 18일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11월 18일 가축위생연구소 강당에서 89년도 추계학술발표

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캐나다 중앙정부 보건연구소 식품연구부 박종일 박사의 「Advance in food Safety Research with respect to food borne bacterial pathogen」,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신광순 박사의 「한국 수의정책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AGRIBUSINESS 대응책 세미나 개최

—한국애그리비즈니스연구회 주최로—

Agribusiness 연구회(회장 박영인)는 지난 11월 10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을 위한 애그리비즈니스의 대응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 축산부문에 가해지고 있는 국내외의 압력에 각 기능의 독자적인 개선대책에 한계가 있어 각 기능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개선책을 찾기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박영인 회장의 “애그리비즈니스의 개념과 현실적인 중요성”, Kansas 주립대 Bill Able 교수의 “한국 육우산업의 발전대안”, 충남대 박종수 교수의 “낙농육우와 우유소비촉진”, 농림수산부 박수현 계장의 “육돈산업의 효율성 분석”, 단국대 김동희 교수의 “미국 육계산업 발전과 그 교훈”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동남아 육계산업 시찰단 모집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남아 양계산업 시찰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양계인 여러분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 1. 참가대상 : 본회회원 및 육계생산자
- 2. 시찰단 구성예상인원 : 20명내외
- 3. 기 간 : 1990.2.10~2.17(7박8일)
- 시찰국 : 태국·대만·홍콩(3개국)
- 시찰내역 : 육계농장, 사료공장, 도계장
- 소요경비 : 900,000원
- 4. 모집기간 : 90.1.8~21

월 일	장 소	여 정
2.10	서울 타이페이	오후 13:00까지 김포공항 구청사 2층 신한은행 앞에 집결, 대만으로 향함. 타이페이 도착후 시내관광 및 호텔에 체크인후 투숙
2.11	타이페이	조식후 오전 양계농장 방문, 중식후 고궁박물관, 중정기념관, 충렬사 관광
2.12	타이페이 방콕	오전 울라이 민속촌 관광, 중식후 방콕으로 향함. 방콕 도착후 버스편으로 파타야로 향함.
2.13	파타야 방콕	오전 산호섬 일주 관광 중식후 양계산업 시찰후 방콕으로 귀환
2.14	방콕	홍콩 도착후 빅토리아산정 야경관광 및 점보식당에서 석식
2.15	방콕 홍콩	방콕 출발후 홍콩으로 하함. 오전 수산시장, 새벽사원, 왕궁 에머랄드 사원등 관광
2.16	홍콩	오전 해양공원 관광 오후 구룡반도, 리펠스베이, 수산촌등 시내관광
2.17	홍콩 서울	오전 홍콩시내 관광후 서울로 향함.

*여행조건 : 2인 1실의 호텔 및 식사포함. 왕복항공운임, 해외여행보험, 공항, 호텔 구간의 교통편, 여권 및 비자수속비용등 포함.

6. 문의 및 상담 : 본회지도조사부(전화 588-7651)로 연락바람.